



주석처인 금산사 만월당에서 <학명집>을 읽고 있는 월주 스님.

‘함께 잘 살기’ 평생의 화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월주 스님 (김제 금산사 회주)

너 른 호남평야를 어머니가 양 팔 벌려 감싸안은 듯한 모악산(母岳山), 만물의 텃자리쯤에 해당하는 김제 금산사(金山寺)에도 여음이 찾아왔다. 고회를 남긴 태공 월주(太古 月珠) 스님이 주석하는 만월당(滿月堂)에 들어서자 산들바람을 벗삼아 책장을 넘기던 스님이 반갑게 께를 맞는다. “엄마 전, 어느 스님이 <학명집(鶴鳴集)>을 보내왔어요. 학명 스님은 일제 때 주로 호남에 주석하며 ‘반선반농(半禪半農)’ 운동을 주창하신 선승이자 사회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당시는 불교뿐 아니라

“참선이든 경건강독이든 수행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았으면 사회에 회향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귀일심원(歸一心願)이며, 사회화하는 것이 요익중생(饒益衆生)으로, 이는 곧 대승불교 사상의 요체입니다.” 월주 스님의 은사는 한국불교 평화운동을 주도했던 금오 스님이다. 참으로 엄했던 분이였다. 곁에 있으면 칭찬보다 ‘틀렸다’ ‘잘해라’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은사스님에게 합장 반배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더 숙여라’는 것이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는데도 스님은 계속 ‘더 숙여라’고 말할 뿐이였

‘깨달음의 사회화’ 주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0년째 ‘지구촌공생회’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 희망심기 매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던 때였는데 스님의 수행과 실천행은 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학명 스님(1867~1929)은 내장사에 주석하면서 사찰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스님도 일하며 정진해야 한다”며 실천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선곡, 선원곡(농사 지으며 참선하자) 등의 찬불가를 발표해 불교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월주 스님이 걸어들었던 길도 수행과 포교, 복지사업으로 접목된다. 스님이 출가한 때는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다. 어느 사찰에 머물든 자급자족하며 가림수호와 복구에 주력해야 했다. 스님은 두 번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법당에 들면 참선하고, 일어서면 자비행을 펴는 반좌반행(半坐半行)’으로 종단 자주화와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끌었다.

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자만하지 말고 이 마음을 버려라’는 커다란 가르침이었다. 은사스님이 교구정병 말씀하신 것은 ‘참선하라, 계율을 잘 지켜라, 보살행을 행하라’는 세 가지였다. 공구에는 견성성불해야 하는데 계행을 지키지 않고,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주 스님은 1994년 개혁신당 총무원장 시절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했다. 사회 복지법인을 만들어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했던 대사회복지에 적극 나섰다.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10년째 이끌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에도 10여 차례 다녀왔다. 오늘날 조계종단에서 펼쳐지는 포교와 복지사업은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몸담으면서 토대를 닦은 성과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총무원장과 불교의 대사회 참여를 위해 일하다보니 월주 스님을 찾는 이도 많고, 가야할 곳도 많다. 평생 소식(小僧)과 독



월주 스님은 고회가 넘은 나이에도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해 국제적으로 왕성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업사 등서 10 허안거 성만 조계종 총무원장 두번 지내

월주 스님은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54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56년 회업사에서 수선 이래 10허안거를 성만했다. 금산사 개운사 영화사 주지 역임. 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을 맡았으나 신군부에 의해 10·27 법난이 일어나 7개월만에 물러났다. 94년 조계종 개혁때 제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 나눔의 집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이사 등을 맡아 대사회 활동에 힘쓰고 있다. 2000년 국민훈장 모란장과 2005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보살사상> <인도성지순례>가 있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아이원 그린 냉풍기
3중 냉각방식! 공기정화 에어컨발생!
SLC-5000R

국내직접생산

본 제품은 기존 선풍기에 비해 다양한 기능과 차별화된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으며, 에어컨에 의한 냉방병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전기료와 부담이 없고, 냉방기능과 동시에 가습 및 공기정화의 기능이 있는 다기능 냉풍기입니다.

특별 사은품-하나,
16인치 벽걸이선풍기

특별 사은품-둘,
아이스팩 2개 더(총6개 증정)

‘오직 불자님들께만 드리는 단 한번의 혜택!!’

불자들을 위한 냉풍기 초특가 보급행사

국내 최저가 보급 150대 한정판매

[제품사양]

- 제 품 명 : 아이원 그린 냉풍기[SLC-5000R]
- 구 성 : 본체+리모컨+교체용필터+간전지+아이스팩4EA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제품크기 : 320(W) x 230(D) x 700(H)mm
- 중 량 : 7.4Kg
- 제조사 / 원산지 : 성일 / 한국
- 소비자가 : 180,000원 → **초특가 99,000원**

LCD 계기판
최신 필리프 LCD 계기판 채용으로 디자인과 편리함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동이 편리한 측면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하기가 편리합니다

일렉트로룩스 무선 주전자

[제품특징 및 사양]

일렉트로룩스 무선 주전자 EEK3000 세련된 블랙 컬러와 모던 디자인의 조화

- 용 량 : 1.75L
- 소비전력 : 1850W
- 색 상 : 블랙 & 실버
- 특별보급가 : 45,000원

AIRSON 이동식 에어컨

냉방, 제습, 송풍, 공기정화까지, 4in1 이동식 에어컨!! (10~12평형)

[제품특징 및 사양]

물방이가 필요없는 증발수 냉각방식, 저소음, 제습 및 송풍 기능, 자동온도 조절기능, 공기 정화필터 사용, 전기충을 올 리보전 하나로 조작할 수 있으며, 강력냉방, 최대 24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여 작동하고 싶은 시간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냉방능력 : 12000BTU/3500W
- 냉방면적 : 25㎡ • 중 량 : 34Kg
- 소비전력 : 1500W • 제습용량 : 1.8L/H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제품크기 : 490(W) x 840(D) x 330(H)mm
- 특별보급가 : 632,000원

가정용 제습기

[제품특징 및 사양]

가정용 제습기는 Peltier Technology를 응용한 제품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아 조용한 운전이 가능, 초소형, 초경량화로 좁은공간에서도 위력을 발휘, 풍량이 잘 되 않아 쉽게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나 창고, 옷장 등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 제품크기 : 154(W) x 130(D) x 218(H)mm
- 중 량 : 1.1Kg
- 제조사 / 원산지 : GINFAX / 중국
- 특별보급가 : EF883 28,500원 / EF881 39,000원

고객센터 02-732-1520 [입금계좌안내] 농협 053-01-267081 / 국민 023501-04-074548 (예금주:마하물)

각자 분야에서 전법행 펼치세요

월주 스님의 가르침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금강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수보리아,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 모래알만큼의 신명을 다하여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사구계(四句備) 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리라.”

이는 아무리 많은 재(財)보시라 할지라도 그 공덕이 법(法)보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포교가 보살행 실천의 으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은 소의경전을 <금강경>과 전등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참선을 수행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자들이 널리 택하고 있는 염불과 간경, 주력 등의 수행방법 또한 배제하지 않으며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선이 해탈에 이르는 지름길로 알려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 급속한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오는 양극화와 인간소외로 시대고(時代苦), 사회고(社會苦)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불교는 현대사회의 소외된 중생들이 겪는 질병 빈곤 무지 인권 탄압 등의 사회고와 남북분단과 환경파괴 등의 시대고에 따른 고통을 받고여려(受苦與樂)의 자비정신으로 털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베고프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본래 생사가 없으니 마음을 뒤아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설법은 것전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이 유린되는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나게끔 돕는 것이 전법도생의 일환입니다.

무릇 우리 불자들은 수행하면서 무명중생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법행을 펼쳐야 합니다. 불자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기여하고, 그 영역의 확대를 통해 불교야말로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자비와 이타의 종교임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보현행원> 10대원의 하나인 ‘광수공양(廣修供養)’의 정신을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광수공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불자들은 수행과 전법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병든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을 막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인권탄압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사업도 해야 합니다.

국가간, 민족간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상 종교적 이념의 충돌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살리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광수공양에 속합니다.

포교를 통한 중생구제만이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부디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이준영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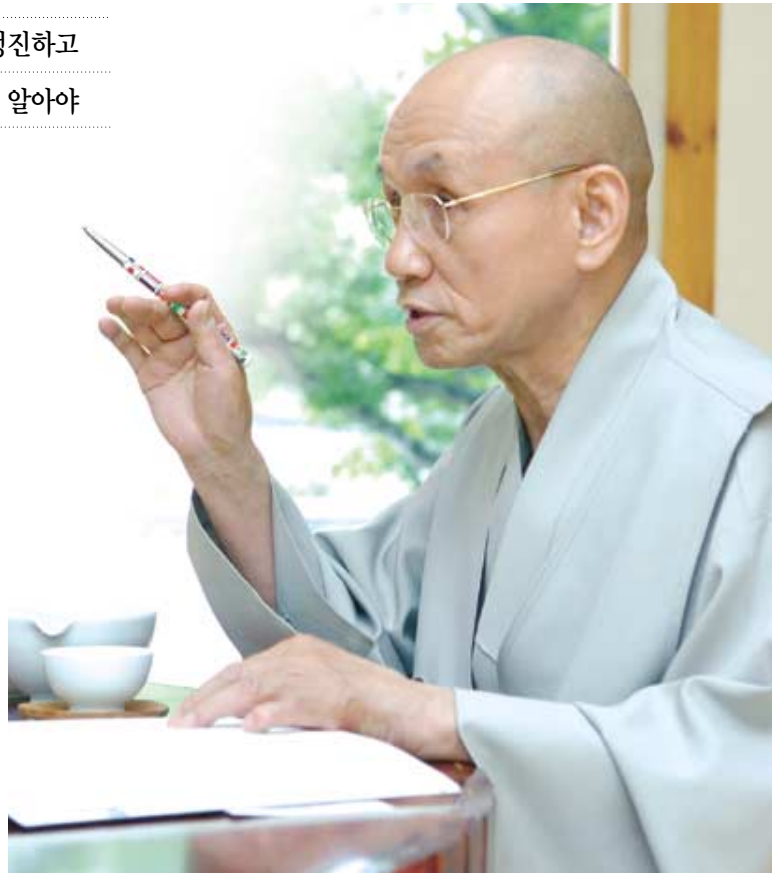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 택해 정진하고 포교가 佛恩에 보답하는 큰 길임을 알아야

저 있습니다. 저 역시 일찍이 은사 금오 스님으로부터 ‘이렇고’ 화두를 받아 참구하며, 불자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을 만나보면 참선만을 최고수행법으로 생각하고 참선법에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참선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쉽지만, 업력(業力)이 두터운 사람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염불 간경 주력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더디 걸립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정신 통일을 이루기가 한층 수월합니다. 이러한 수행으로도 각자의 소망을 성취하면서, 지혜(보리심)를 얻고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근기에 맞는 방법을 택해 참구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교리나 수행방법, 의식과 의례면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두루 취하고 포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포교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를 지향하며, 전법과 사회사업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한말, 개항 이후에 서구문화와 함께 유입된 서구의 종교는 도심과 대중 속으로 활발한 선교와 사회 구제사업을 하면서 급속히 사회저변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중에만 머물러 있던 불교는 세속과 괴리된 채 전법도생의 본분사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물밀듯 들어오는 서구문물의 범람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전통문화가 쇠퇴하는 등 사회전반이 정체성의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2>



내 아이에게 포교하기

기본교육이 끝나면 이따금 질문을 받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불교는 여전히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짤에 다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구요. 우리 아이에게 부처님의 이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고 짤에 다니게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 아이에게 먹여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토록 달콤하던 맛이 싹 사라질 정도입니다. 언젠고 꼭 데리고 와서 먹여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그러한데 하물며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잘 알고 가르침 행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자체가 말이 필요없는 포교

종교를 권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종교를 갖기까지는 제각각 다양한 계기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때 모든 신앙으로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의 신심이 가장 두터운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그 종교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리나 저리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곧 어머니요, 어머니가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부모가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경전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그 말 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자식을 믿어 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

을 알았기에 보아온 자식은 항상 자기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면 자기 부모가 그려왔듯이 자기도 그 종교에서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나 부모가 먼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자기가 먼저 잘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 모습 자체로 특별한 말이 필요 없는 훌륭한 포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없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라. 그리하여 상대가 너의 말을 듣고 즐겁게 받아들여거든 그때 그들을 위해 네 가지 무너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 머무르게 하라. 네 가지란 불·법·승·계이다.”(잡아함 사불교정경)

자기 신앙을 권하기 이전에 자식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풀고(보시), 진실하고 다정한 말을 늘 건네며(애어), 자식에게 이롭도록 행동하고(이행), 자식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할 것(동사)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이 네 가지를 자식에게 먼저 실천하면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가까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불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마련이니까요.

■ 이미영(동국대경원역경원원)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주,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蠟燭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중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현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본사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www.soungjongsong.co.kr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